

문헌을 통해 본 조선시대 방한모 명칭에 관한 연구

강 순 제* · 김 은 정⁺

가톨릭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가톨릭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A Study of the Types of Winter Caps Found in the Literature of the Joseon Dynasty

Soon-Che Kang* · Eun-Jung Kim⁺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Instruct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투고일: 2008. 6. 17, 심사(수정)일: 2008. 7. 16, 게재확정일: 2008. 8. 18)

ABSTRACT

The study aimed to classify and analyze about the winter cap in the literature of the Joseon Period, as the period of using, synonyms, user, shape and materials.

The following are the result of the study.

1. The winter caps can be classified into two kinds of group by times. The first ones have been used continuously during the whole Joseon Dynasty, for example, Nanmo(煖帽, 暖帽, 煖帽), Ieom(耳掩) and Pigyeon(披肩). These names are winter caps for the bureaucracy. The second ones have been used a part of the Joseon Period. Some of the names used in the first half of the Joseon Period, for example, Mogwan(毛冠), Chopigwan(貂皮冠), Chogwan(貂冠) and Seobokpigwan(鼠腹皮冠). The other names used in the latter half of the Joseon Period, for example, Noepo(腦包), Nanja(暖子), Jeomgyeon(苦肩), Chageompi(遮臉皮), Pimaho(皮馬虎), Wibo(圍頰), Chipo(腦包), pungryeong(風領), Nani(煖耳), Hohang(護頰), Hwihang(揮頰), Manseonduri(滿縉頭里), Pungcha(風遮), Samsangeon(三山中), Iwi(耳衣), Aekeom(額掩), Yangjeongeon(涼轉巾), Bolkki, Ayam and Gulle.

2. Synonyms with connoting relationship in which one name perfectly connotes meaning of another name are Nanmo, Nani and Pigyen, Nanmo connotes Ieom, Chomo, Homo, Iwi and Hwihang. Nani connotes Hwihang, Hoieom and Pungcha. Pigyen connotes Hwihang and Ieom. In these cases, the range of the meaning of clothing terms can be confirmed since names with broad meaning connote names with narrow meaning.

3. Some names related with the other names, as the user, shape and materials, for example, Ieom, Hwihang and Pungcha.

Key words: winter cap(방한모), Joseon period(조선시대), synonym(동의어)

I. 서론

방한모는 추위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 쓰개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다. 조선시대의 문헌에는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명칭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 명칭들은 문헌에 등장하는 시기마다 서로 다르고, 신분이나 성별에 따라 명칭의 쓰임새도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의어 명칭들을 한데 묶어 정리한 어휘 분류사전에는 몇 가지의 방한모 명칭들이 동의관계로 서로 묶여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이 서로 어떠한 연관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긴다.

이에 본 연구는 방한모 관련 선행연구들¹⁾²⁾³⁾에서 간과되어 왔던 조선시대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다양한 방한모의 명칭과 의미, 각 명칭간의 상관관계에 주목하여, 문헌을 중심으로 개별 명칭의 사용 시기 및 쓰임새의 변화, 명칭들 간의 관계 등에 내재한 의미를 분석해내고자 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의 결과는 명칭을 통해서 본 조선시대 방한모의 변천사를 짚어보는 데에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주 자료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 『국혼정례(國婚定例)』,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 『대전회통(大典會通)』 등의 역사서와 법전, 『지봉유설(芝峯類說)』, 『반계수록(磻溪隧錄)』, 『성호사설(星湖僊說)』, 『추관지(秋官志)』, 『대동야승(大東野乘)』, 『규합총서(閩閩叢書)』, 『연려실기술(練藝室記述)』, 『아인각비(雅言覺非)』,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등의 개인문집과 사전, 『역어유해(譯語類解)』, 『몽어유해(蒙語類解)』, 『동문유해(同文類解)』, 『방언유석(方言類釋)』, 『화어류초(華語類抄)』 『몽유편(蒙諭篇)』, 『사류박해(事類博解)』, 『물보(物譜)』, 『물명고(物名攷)』, 『광재물보(廣才物譜)』 등의 어휘집이며, 이 밖에 고전소설 및 회화와 유물 자료를 함께 병행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II. 문헌을 통해 본 시기별 방한모 명칭

방한모 명칭이 등장하는 시기를 중심으로 개별 명칭의 사용 시기 및 쓰임새의 변화, 명칭들에 내재한 의미를 분석하였다.

개인문집과 사전에서 자주 인용되는 방한모 관련 내용은 <표 1>로 묶어 정리하였다. (이하 본문 중 개인문집과 사전에서의 원전 인용 출처는 표 1로 대체하고자 함.)

1. 지속적으로 사용된 방한모 명칭

조선 전 시대에 걸쳐 문헌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방한모 명칭은 시기별로 <표 2>에 정리하였다.

1) 난모와 초모(貂帽)

난모는 '暖帽, 煖帽, 煖帽'로 표기되는데, 여기서 '난'에 해당되는 한자는 모두 '따뜻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다만 한자 표기상의 차이일 뿐이다.

난모는 『高麗史』 충렬왕 계사(癸巳) 19년(1293)의 기록에 세자가 왕에게 난모를 올리는 데에서 처음 보이며, 이후 조선시대 말까지 그 명칭이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여자가 착용한 방한모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 예는 조선 초기 간택된 처녀를 동행하는 여아와 유모에게 필요한 물품⁴⁾ 중의 하나로 기록된 것이 유일한 예인데, 이후에는 임금의 우의정에게 하사한 기록⁵⁾, 임금의 방한모를 지칭한 기록⁶⁾, 문신의 제술(製述)을 친히 시험하고 수석을 차지한 자⁷⁾ 및 전경 문신(專經文臣)의 전강(殿講)을 행하여 수석한 자에게 하사한 물품 기록⁸⁾ 등에서 난모라는 명칭이 등장하고 있다. 또 『추관지』에 의하면 난모(暖帽)는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것'이라고 하여, 대체로 관직자의 방한용 모자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초피로 만든 난모 즉 초모(貂帽)는 『조선왕조실록』에 임금이 좌의정⁹⁾, 주청 사은사, 부사, 서장관¹⁰⁾, 이조 판서¹¹⁾, 대사헌¹²⁾, 약방의 관원¹³⁾에게 하사하는 기록이 있고, 임금이 형조판서(刑曹判書), 이

〈표 1〉 개인문집과 사전에 기록된 방한모

문헌	내용	방한모 명칭
『芝峯類說(1614)』 卷十九, 服用部 巾冠	“今之耳掩 舊稱披肩 按征討錄 成廟朝命造披肩二千 分賜士卒 是也 中朝則謂之暖子 雖盛冬必旨下後 百官始得戴之”.	耳掩, 披肩, 暖子
『大東野乘』卷之五十七, 清江先生鯁鯢瑣語(1629)	“我國人近古通士庶 好質優癩皮爲披肩 披肩卽俗所謂耳掩也 競以色黑者爲尙 多歸高直以取 而倭人坐收其利 我國綿布盡歸敵土 良可痛甚”.	披肩, 耳掩
『礪溪錄(1652-1670)』 卷之二十五 續篇 上 衣冠	“我國耳掩 好尙侈大 常民猶用兩具之皮 女人毛冠幾用三具 其大者幾用五具. 以故皮價甚高 貧而老病者 不得着, 若令依此改之 一禁侈大之習則皮價不湧而 徧及老病之人矣”.	耳掩, 毛冠
『星湖僿說(1740경)』 卷之六, 萬物門,	“披肩俗稱耳掩”. “長則披肩稍短則揮項最長者只掩耳言披肩則項與耳在中矣”. “俗又有揮項者大者鞞盡肩背小者只周腦項表用絹裡及緣皆用毛以前兩角反以繫于腦後則略似耳掩之製/大槩源同而流別者也”. “.....又有婦人耳衣 上不覆頂 下不及肩.....”.	披肩, 耳掩, 揮項, 耳衣
『秋官志(1781)』第四編, 掌禁部 申章 奢侈,	“.....唯入侍大臣着暖帽.....”. “.....耳掩則勿論士庶乃便服之所着.....”. “有一中官 以暖帽難於脫着 作一短揮項 其時有一醫官效此而着之今則勿論大官小官 皆着此”.	暖帽, 耳掩
『閩閩叢書(1809)』 諸服的 概要,	휘항 기리 ㄱ음으로 자 세치면, 떠서 짓는니 압홀 저허 등솔의 똑 다하야 쓴 가시 조호니라.	휘항
『雅言覺非(1819)』 卷之二,	“護項者 繞項之毛幘也. 華音護項如揮, 護音孛 東俗訛傳, 遂以爲揮項, 貴人貂皮揮項, 賤人鼠皮揮項, 其沿誤已久也. 於是, 頭盔所綴, 以有明文, 謂之護項, 諸武書有文 常服所者, 以無明文, 謂之揮項, 其實本皆護項, 無揮項也.”.	護項, 揮項
『五洲衍文長箋散稿 (19세기)』 下卷, 第四十五, 暖耳栢裕護項煖帽辨證,	“文蔭武公服帽則帶自十月初吉至正月晦日紗帽冒暖帽堂上用貂堂下用鼠俗名耳掩”. “我東暖耳之制 有公私貴賤文武所着自別 私家常着 毋論貴賤文武有揮項胡耳掩風遮之制 或毛或袂 衣以黑緞褐布”. “今上甲辰冬自上 有改製耳掩之命收議羣僚竟以小風遮三山中而外沿則堂上以貂縮之堂下以黑皮縮之”. “國俗尊貴之前卑賤不敢着揮項 故脫而進見”. “武臣則公服滿縮頭里用其制毛揮項之前後外沿周以貂尾爲縮”. “朝士之年老者 出闕內 用小風遮 或名項風遮 或名三山中”. “今上即位後耳掩還復舊制自十餘年前有抹額兒掩之制以獺皮外毛內紬圍如首經後有雙小綵而以黑緞爲之更取紐制不脫筭而自外圍着脫却以爲從便之制上下通行云”.	暖耳, 煖帽, 小風遮, 三山中, 滿縮頭里, 毛揮項, 抹額兒掩
『練藜室記述 (조선후기)』別集 卷之十三, 政教典故, 我國紗帽耳掩體制	“明廟朝以前 皆略如本國之所謂笠耳掩者 而甚爲濶大豐肥 故貂皮則用四五領鼠皮則十三四領 然後可作 有好糸口而合前頂 有纒綉而垂後頂 載之甚重 而實不蔽耳 或謂此爲依倣宋朝之制云 未知何據 然我國衣冠 必取法中國 則宋制之言 未必非然 丁卯冬詔使將臨時 禮判閔箕 因時議請改從華制 但華制則於帽後插角 下無遮尾 蓋別護項故也 我國無護項 請項後則祭用本國之制 上從之 然項後之制 互相意造 久而未一”. “成廟朝 命造披肩二千分賜士卒 中朝則謂之煖耳”.	紗帽耳掩, 護項, 披肩, 煖耳

조참의(吏曹參議), 승지(承旨) 등이 쓴 난모가 볼품이 없어 초모 1부(部) 씩을 내려 주었다는 기록¹⁴⁾과 『영조실록』 1년 2월 신사(辛巳)에는 종친부의 경우 당하관이라 할지라도 초모를 사용한다는 기록이 있으며, 『정조실록』 23년 10월 을미(乙未)에는 난모에서도 “초모(貂帽)는 곧 덕이 있는 자에게 쓰게 하는 상징물로서, 초헌(軺軒)이나 마찬가지로 품계를 확연

하게 구분해 놓은 것”이라 하여 초피를 재료로 한 난모는 고급 관리가 사용한 방한모였음을 알 수 있다. 『오주연문장전산고』에도 당상관의 난모는 초피(貂皮)로 하고 당하관은 서피(鼠皮)로 하였다고 하여 품계에 따라 재료를 구분하여 사용했음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난모라는 명칭은 조선 전 시기를 통해서 등장하는데 그 구체적인 형상을 상고할 수 있는

〈표 2〉 지속적으로 사용된 방한모 명칭

명칭		시기	13C	14C	15C	16C	17C	18C	19C
난모	暖帽	高麗史: 충렬왕 19년(1293)			태종실록: (1건)		숙종실록: (2건)	숙종실록: (1건)	광재물보:
	煖帽							숙종실록: (1건) 영조실록: (8건) 정조실록: (6건)	오주연문장전산고: 광재물보:
	煖帽								몽유편: 사류박해:
	재료에 따른 명칭								
이엄	貂帽				성종실록: (1건)		광해군일기: (1건) 효종실록: (4건) 현종실록: (1건) 현종수정실록: (1건) 숙종실록: (7건)	숙종실록: (1건) 영조실록: (22건) 정조실록: (3건)	
	貂皮帽						광해군일기: (1건) 효종실록: (1건)		
	紗帽					명종실록: (1건)			
	耳掩								
	貂皮帽掩						광해군일기: (1건) 숙종실록: (1건)	숙종실록: (1건)	
	鼠皮帽掩						광해군일기: (1건)		
이엄	帽掩						현종실록: (1건)		
	耳掩			태종실록: (4건) 세종실록: (24건) 문종실록: (6건) 단종실록: (6건) 세조실록: (22건) 성종실록: (44건) 연산군일기: (3건)	연산군일기: (5건) 중종실록: (16건) 명종실록: (8건) 선조실록: (13건) 선조수정실록: (1건)	광해군일기: (13건) 인조실록: (9건) 효종실록: (2건) 현종실록: (1건) 현종수정실록: (1건) 숙종실록: (3건)	숙종실록: (1건) 영조실록: (3건) 정조실록: (1건)	현종실록: (1건) 철종실록: (2건) 고종실록: (1건)	
	笠耳掩					선조실록: (3건)	광해군일기: (1건) 효종실록: (1건)	영조실록: (1건)	
披肩					중종실록: (1건) 명종실록: (3건)	지봉유철: 역어유해:	방언유석:	성호사설: 연려실기술:	

자료는 없다. 따라서 초기에는 여자의 방한모 명칭으로 사용된 적도 있으나, 주로 재료에 따라 구분을 둔 관직자의 방한모를 지칭하는 일반명사로 사용된 용어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오주연문장전산고』에 난모를 속명(俗名) '이엄'이라 한다는 기록으로 볼 때, 19세기 즈음에 이르러 관직자의 방한모를 가리키는 난모의 구체적인 명칭은 이엄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2) 이엄(耳掩)

이엄은 조선초기부터 말기까지 방한모의 한 명칭으로 등장한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임금¹⁵⁾, 당상관¹⁶⁾, 당하관 및 사족(士族), 제학(諸學)의 관원, 군사¹⁷⁾, 홍문관·승정원·예문관의 관원¹⁸⁾ 정릉·효릉의

반감(飯監) 및 하인¹⁹⁾, 서얼(庶孽), 이서(吏胥), 공상(工商)·천예(賤隸)²⁰⁾, 여인²¹⁾, 명부²²⁾의 방한모 명칭에서 확인된다. 또 『가례도감의궤』에는 인조 장열후(1638)부터 고종 명성후(1866)까지 기행나인, 보행나인, 상궁, 시녀, 유모 등이 이엄을 사용한 기록이 있는데²³⁾, 『추관지』에는 사서를 막론하고 편복에 쓰는 것이라고 한 것을 보면, 이엄은 난모와 달리 조선 초부터 19세기 말까지 상하 계층 및 성별에 관계없이 두루 사용했던 방한모 명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재료, 쓰임새에 따라 이엄은 몇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겨울철 관복의 한 품목으로 사용한 이엄²⁴⁾은 일찍부터 품계에 따라 재료에 차등을 두어 당상관의 상복(常服)에는 단(段)·초피(貂皮), 3품 이하 9품까

지의 당하관의 상복에는 초(綯)·서피(鼠皮)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경국대전』²⁵⁾에서 『대전회통』²⁶⁾의 기록에 이르기까지 변함이 없다. 또 『가례도감의궤』에는 모피가 재료인 '모이엄(毛耳掩)', '모단(冒段)'으로만 만든 '양이엄(涼耳掩)', 의차(衣次)로 보아 '숨을 두어 만든 것으로 보이는 이엄(耳掩)²⁷⁾'이 있어 재료에 따라 몇 가지 유형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여자들의 '양이엄'은 『광해군일기』 2년 5월 신해(辛亥)의 기록에서 보면 가례, 또는 명부의 모임에 사용되는 등, 예를 갖추기 위해 사용되었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엄의 형태는 시기에 따라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연산군 때까지의 문헌 기록에는 이엄이 '모관·이엄²⁸⁾', '초피관·초피이엄²⁹⁾', '초관·이엄³⁰⁾', '서북피관(鼠腹皮冠)·초피이엄³¹⁾', '초피관·이엄³²⁾'이라 하여 모피로 된 방한용 쓰개인 모관과 함께 하사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초기의 이엄은 한자의 의미 그대로 귀를 보호하는 소형(小形)의 방한도구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중종실록』 9년 10월 25일의 기록에 '지금 상의원(尙衣院)에서 하사하는 이엄은 그 제도가 매우 크고 비용도 많이 든다. <중략> 옛날에는 귀만 가리었으나 지금은 머리까지 모두 덮어씌우니 매우 괴이한 일이다'라 하여 조선 초기 귀를 가리던 소형의 이엄은 중종 때 즈음에 그 크기가 커져 머리까지도 덮을 수 있는 크기의 방한모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에는 명종 때부터 관리들의 이엄에 대해 사모이엄(紗帽耳掩)³³⁾, 모이엄(帽耳掩)³⁴⁾, 입이엄(笠耳掩)³⁵⁾, 모엄(帽掩) 등의 관련 명칭들이 확인된다. 사모이엄에 대하여 『연려실기술』에는, "명종 조(1545-1567) 이전에는 우리의 입이엄이라는 것과 같았다. 이는 매우 넓고 크며 두텁기 때문에 초피 4, 5장, 서피 13-15장을 써야 만들 수 있었고 좋은 단추가 있어 앞이마를 여미고, 끈이 있어서 등 뒤에 드리웠으며, 무겁고 귀도 가려지지 않은 형태였다. 그런데 명종 때 예조판서 민기(閔箕, 1504-1568)가 당시의 의논에 쫓아서 사모이엄을 중국 제식대로 고치기를 청하였고 <중략> 임금이 이를 따랐다"는 기록이 있다. 그런데 당시 중국의 제식이란 문

헌의 내용으로 보면 '피견'이라고 하는 <그림 2>의 형태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 즉 명종 때에 고쳤다는 사모이엄은 기존의 제도에 중국의 제식과 같이 뒤에 뿔을 꽂는 형태였을 것으로 추측되나, 이러한 형태의 것이 실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헌종 10(1844)년에 조복의 이엄을 삼산건(三山巾) 혹은 작은 풍차(小風遮)로 바꿨다는 기록³⁶⁾이 있고, 철종 7년에는 방한모로 이엄, 풍차, 양전건이 있는데, 이엄은 구제이니 양전건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나³⁷⁾, 철종 11(1860)년에 다시 이엄, 양전건, 풍차를 모두 통용하도록 하라는 기록³⁸⁾과 조선왕조 마지막 법전인 『대전회통(1865)』에도 기록되어 있어 국말까지 이엄이 관복의 방한모로 사용되었음은 확실하다. <그림 1>은 조선 말기 신하와 임금이 관복에 방한모를 착용한 모습으로 이것이 곧 말기의 관직자의 '이엄'으로 생각된다.



<그림 1> 조선말기의 관직자(右:영친왕/ 左:신하)의 이엄착용 모습(서울대박물관(2006), 「마지막 황실, 잊혀진 대한제국」)

3) 피견(披肩)

피견은 『명종실록』 8년 9월 신유(申諭)의 기록 중에 '이엄(耳掩)'을 '피견(披肩)'으로 주해(註解)하였고, 『지봉유설(1614)』에는 오늘날의 이엄은 옛날에는 피견이라 불렀다고 하여 중종 대 즈음부터 크기가 커진 이엄과는 형태상 공통점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고, 외국어학습서에는 표제어 披肩을 '이엄(耳掩)³⁹⁾' 혹은 '피견⁴⁰⁾'으로 이해하고 있어, 피견은 조선시대 '이엄'에 해당되는 외래어 명칭인 것으로 생

각된다. 그런데 『연려실기술』에 의하면 '성종 때에 피견 2천개를 사졸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중국에서는 이를 난이(煖耳)라 하였다'고 했는데, 중국 명대의 기록⁴¹⁾에 피견은 난이와는 쓰임새가 다르다고 하였으며, 이를 참고로 주석보(1983)는 <그림 2>와 같은 형태의 것을 피견으로 제시하고 있다. 『청강쇄어』에 피견은 사서(士庶)가 모두 사용하였는데, 왜달피(倭獺皮)를 이용하여 만들었다 하였으며, 『성호사설』에는 긴 것은 피견, 조금 짧은 것은 휘항(揮項), 아주 짧은 것은 엄이(掩耳)라고 하였음을 감안하면, 피견은 휘항, 耳掩을 포괄하는 명칭이라 할 수 있겠다.

이상 피견은 성종 때의 피견을 기록하고 있는 『연려실기술』의 내용으로 보아 비교적 일찍부터 사용된

외래어 방한모 명칭으로 짐작되는데, 1600년대 이후의 기록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피견은 특정한 형태의 방한모를 지칭하는 구체적인 명칭이 아니라 이엄, 휘항을 포괄하는 일반명사로서의 방한모 명칭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2. 일시적으로 사용된 방한모 명칭

조선시대 문헌에 일정기간 일시적으로 사용된 방한모 명칭들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이전부터 기록된 모관(毛冠)을 기준으로 하여 모관이 기록되어 있는 조선전반기(14-17세기)와 모관 이외의 명칭들이 등장하는 후반기(17-20세기)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그림 2> 披肩(주석보(1983), 『중국고대복식사』, p. 411)

1) 조선 전반기의 방한모 명칭(14-17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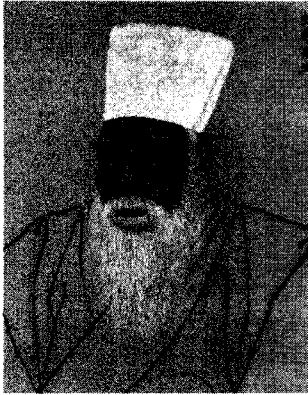
조선 전반기에 등장하는 방한모 명칭은 <표 3>에 정리하였다.

모관(毛冠)은 모피로 만든 방한모를 지칭하는 대표적인 명칭이며, 재료에 따라 초피관(貂皮冠)·초관(貂冠)·서복피관(鼠腹皮冠)으로 분류된다.

모관이라는 명칭은 『고려사절요』⁴²⁾, 『고려사』⁴³⁾에 이미 군사의 방한용 쓰개로 기록된 것을 시작으로 하여 『조선왕조실록』에는 인조 7년까지의 기록에 등장한다. 사신⁴⁴⁾과 좌정승⁴⁵⁾, 판전농시사(判典農寺事)⁴⁶⁾, 좌부승지(左副承旨)⁴⁷⁾ 등 관인들에게 겨울철 방한구

<표 3> 조선전반기 방한모 명칭과 문헌에 기재된 시기

명칭	시기	14C	15C	16C	17C
毛冠		『태조실록』(2건)	『태종실록』(13건) 『세종실록』(86건) 『문종실록』(6건) 『단종실록』(8건) 『세조실록』(9건) 『성종실록』(7건) 『연산군일기』(2건)	『중종실록』(6건) 『명종실록』(1건) 『선조수정실록』(1건)	『광해군일기』(1건) 『인조실록』(1건)
貂冠			『세종실록』(15건) 『세조실록』(8건) 『성종실록』(1건)		
貂皮冠		『태종실록』(1건)	『단종실록』(1건) 『세조실록』(3건) 『예종실록』(1건) 『성종실록』(4건)		
鼠腹皮冠			『단종실록』(1건)		



〈그림 3〉 백모관, 송시열 (이강철의 11인(2003), 『역사인물 초상화대사전』, p.171)

로 하사했다는 기록이 있고, 여자의 착용 기록⁴⁸⁾⁴⁹⁾과 임금의 익선모관(翼善毛冠) 기록⁵⁰⁾도 있다. 또 인조 때에 사대부들이 백모관(白毛冠)의 착용을 좋아했다⁵¹⁾고 하는데, 이는 〈그림 3〉의 인조 때 학자 송시열(1607-1689)의 초상화에서도 확인된다. 이처럼 모관은 임금, 관인, 사대부, 군사, 부녀자 등이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모피로 만든 방한용 쓰개를 지칭했던 일반명사로써 17세기 초까지의 문헌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 중에는 〈그림 3〉과 같이 모정이 막힌 털로 된 방관(方冠) 모양의 것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 초기부터 연산군 때까지의 기록에는 궁에서 모관을 사여할 경우에 종종 또 다른 방한구의 하나인 이엄과 함께 기록⁵²⁾되어 있어 조선 초기에는 크기가 작은 이엄과 함께 착용했음을

〈표 4〉 조선후반기의 방한모 명칭

명칭	시기	17C	18C	19C
의 래 어	腦包	『선조수정실록(1657년)』 『반계수록(1652년-1670년)』		
	暖子			
	苦肩	『자봉유설(1614)』 『역어유해(1690)』		
	遮臉皮	불끼	『역어유해보』 『동문유해』	
	皮馬虎		『몽어유해』	『오주연문장전산고』
圍頸	『방언유석』			
腦包			『사류박해』 『물명고』	
	風領		『동문유해』 『방언류석』	『화어류초(19세기말)』 『물명고(19세기)』 『사류박해』
	暖耳			『오주연문장전산고』 『물보』 『재물보』 『광재물보』
한 자 어	護項			『아언각비(1819)』 『사류박해(19c)』
	揮項		『영조실록』(2건) 『정조실록』(3건)	『아언각비』 『사류박해』 『고종실록』(1건)
	휘항			『물보』 『물명고』 『광재물보』
	滿繡頭里			『오주연문장전산고』
	風遮 풍차			『철종실록』(2건) 『오주연문장전산고』 『국한회어』
	三山中			『오주연문장전산고』 『현종실록』(1건)
	耳衣			『재물보』 『광재물보』
	額掩		『정조실록』(1건)	『아언각비(1819)』 『국한회어(1895)』
涼轉巾			『철종실록』(2건)	
고 유 어	불끼			『몽유편』
	글래			『발기(1897. 10.15)』
	아얌			『국한회어』

알 수 있다.

또 주로 15세기의 문헌기록에 집중하여 등장하는 초피관(貂皮冠)·초관(貂冠)·서북피관(鼠腹皮冠)은 모관의 구체적인 재료 명을 따라 붙여진 방한모 명칭들로서, 초피관과 초관은 모두 '담비'로 만든 쓰개의 하나이다. 초피관은 『태종실록』17년 8월 을유(乙酉)와 『세조실록』1년 7월 경자(庚子)에 耳掩과 함께 하사되었고, 초관은 『세조실록』1년 8월 경술(庚戌), 『세종실록』에는 이엄⁵³, 초구(貂裘)⁵⁴, 초의(貂衣)⁵⁵, 초구(貂裘)와 이엄(耳掩)⁵⁶ 등의 방한 복식 품목과 함께 하사되고 있다. 또 서북피관은 『단종실록』 원년 10월 계사(癸巳)에 초피 이엄과 함께 하사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毛冠(貂皮冠, 貂冠, 鼠腹皮冠)은 16세기까지는 단독으로, 혹은 또 다른 방한모의 하나인 이엄과는 항상 함께 기록되고 있으며, 17세기 전반기 이후의 문헌에서는 모관이라는 명칭의 사용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이는 16세기 이후 두부(頭部)를 감쌀 정도로 크게 변화된 이엄이 모관의 용도를 포괄하는 방한모로 변화되었다는 것과 더불어 이후 모관을 대신하는 구체적인 방한모 명칭이 다수 등장하는 것과도 관련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2) 조선 후반기의 방한모 명칭(17-20세기 초)

조선 후반기 문헌에 게재된 방한모 명칭은 <표 4>와 같으며, 이들은 외래어, 한자어, 고유어 명칭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외래어 명칭

① 뇌포(腦包), 난자(暖子), 점견(苦肩)

『선조수정실록(1657년)』⁵⁷과 『반계수록』에 의하면 중국의 뇌포(腦包)는 우리나라의 이엄이라 기록되어 있고, 난자(暖子)는 『지봉유설』에 중국의 방한모 명칭 중의 하나로 우리나라의 '이엄'과 같다 하였다. 또 한어(漢語) 외국어학습서인 『역어유해(1690)』에는 표제어 '苦肩'을 '耳掩'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처럼 17세기에 출간된 문헌에서 이들 외래어 방한모 명칭 모두가 '이엄'으로 이해된 것은, 당시 대표적인 우리의 방한모 명칭이 이엄이었기 때문인 데에 연유한

것으로, 이는 우리나라 방한모 명칭의 쓰임새를 시대적으로 일별해 보았을 때 가능한 추측으로 생각된다.

이 중에서 '뇌포(腦包)'는 뇌(腦)의 중국 발음이 '나오'이고 포(包)의 중국 발음이 '빠오'로, 이를 합치면 [나옴바오]가 되어 후일 '남바위'로 귀화된 것⁵⁸으로 추정된다.

② 차검피(遮臉皮), 피마호(皮馬虎), 위보(圍褸), 자포(腦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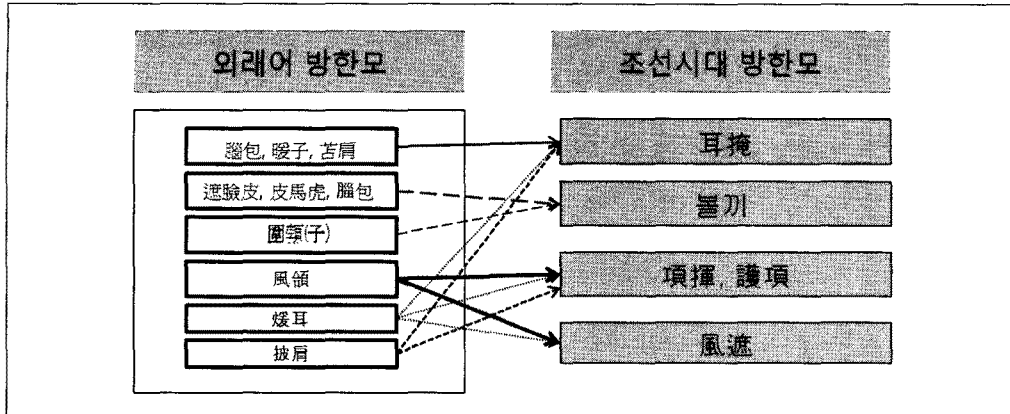
한어, 몽고어 등의 외국어 학습서에서 보면 遮臉皮⁵⁹, 皮馬虎⁶⁰, 圍褸⁶¹는 모두 '불끼'로 언해되어 있고, '腦包⁶²'는 '투구뒤틀림'으로 언해되어 있어 외래어 명칭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腦包는 19세기 어휘 분류사전인 『사류박해』와 『물명고』에는 '불끼'로 기록되어 있어 19세기 우리나라에서는 불끼에 해당되는 방한모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③ 풍령(風領)

풍령은 18세기 만주어, 한어 학습서에는 '털옷⁶³', '털두론 옷⁶⁴'으로 언해되었고, 19세기 한어 학습서에는 '풍츠⁶⁵'라고 언해되어 있어 외래어 명칭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풍령은 19세기 간행된 『물명고』에는 '휘항 譯書曰風遮', 『사류박해』에는 '護項 風領 揮項'이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18세기에는 외래어인 풍령에 해당되는 적절한 우리말 명칭이 없었으나 19세기 우리나라에서는 휘항이나 풍차에 해당되는 방한모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④ 난이(煖耳)

난이 제도에 대하여 『오주연문장전산고』에는 '공사(公私) 귀천(貴賤) 문무(文武)에 따라 각기 그 모양을 달리했고 사가에서도 보통으로 착용했으며 또 귀천 문무를 따질 것 없이 휘항(揮項) 호이엄(胡耳掩) 풍차(風遮)제도가 있는데 혹 털로 만들기도 하고 혹은 흑단이나 갈포를 겹으로 하여 만들기도 하였다'고 하여, 난이는 '휘항', '호이엄', '풍차' 등을 포괄하는 일반명사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주석보(1983)⁶⁶는 중국 명대(明代)의 방한모에서 난이(暖



<도식 1> 외래어 방한모 명칭에 대응하는 조선시대 방한모 명칭

耳)를 <그림 4>와 같이 제시하고 있어, 명칭의 구체적인 사용 예는 다르지만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모두 방한모 명칭으로 사용된 용어임을 알 수 있다.



<그림 4> 暖耳(주석보(1983), 『중국고대복식사』, p. 412)

이상 외래어 방한모 명칭들과 이해된 조선시대 방한모 명칭과의 관계를 <도식 1>에서 보면 조선시대 후반기의 대표적인 방한모 명칭은 이엄, 휘항, 불끼, 풍차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심청전』⁶⁷⁾에 괘씨부인이 샅바느질을 한 내용 중에 “..불끼 휘항 복건 풍차 처네..”등의 명칭이 등장하는 데에서도 이들이 당시 일반적인 방한모 명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한자어 명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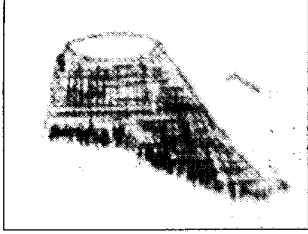
① 휘항(護項·揮項)·만선두리(滿鎗頭里)

휘항은 ‘護項’, ‘揮項’으로 표기된다.



<그림 5> 용봉문두정투구 (溫陽民俗博物館(1998), 『朝鮮時代의 冠帽』, p.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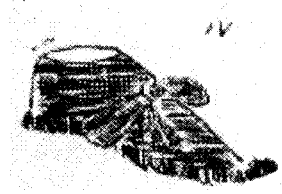
호항(護項)은 조선초기부터 야인(野人)과 왜인(倭人)의 ‘호항면갑(護項面甲)⁶⁸⁾’이라는 기록에서 확인되는데 당시 우리나라의 방한모 명칭으로 사용된 예는 없다. 이후 태종 10년 ‘철호항(鐵護項)⁶⁹⁾’의 기록으로 그 사용례를 확인할 수 있으나, 이때의 호항은 군사의 목 부분을 보호하는 갑옷의 한 품목인 것으로 추정된다. 『물명고』⁷⁰⁾에는 ‘護項(호항) 투구풍차’라고 하였고, 『아언각비』에 “호항(護項)은 목을 두르는 모책(毛幘)으로써, 와전되어 우리나라에서는 휘항(揮項)으로 표기했으며, 무서(武書)에 투구에 연결된



〈그림 6〉 남바위
(조선총독부(1929),
『生活狀態調査』
(其二)濟州道, p. 126)



〈그림 7〉 휘항
(국립중앙박물관(2002),
『조선시대 풍속화』, p. 160)



〈그림 8〉 風遮, 女子用冠物
(조선총독부(1929),
『生活狀態調査』
(其二)濟州道, p. 126)

것으로 기록된 것은 호항(護項), 일상복에 사용하는 것은 휘항(揮項)이라 하는데, 본래는 호항(護項)이지 휘항(揮項)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상의 기록으로 '호항(護項)'은 원래 갑옷의 한 품목으로, 〈그림 5〉와 같이 털을 두른 투구의 드림을 지칭하는 명칭인 것으로 추정되며, 그 유사한 음을 취하여 쓰임새가 조금 다른 '휘항(揮項)'이라는 명칭의 방한모가 등장한 것으로 생각된다.

『추관지』에 의하면 "휘항은 한 중관(中官)이 난모(暖帽)를 벗었다 썼다 하기가 불편하여 짧은 휘항을 만들었는데, 그 때 한 의관(醫官)이 이를 본받아 착용하게 되어 대관(大官)·소관(小官)을 막론하고 모두 쓰게 된 것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난모는 구체적으로 관직자의 방한모인 이엄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앞서 이엄의 크기가 조선중기 이후 커졌다던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점을 보완해서 간소하게 만든 것이 짧은 휘항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같은 문헌에 휘항은 용복에, 또는 군인이 쓰거나 노인이 쓰는 것이라 하였는데, 『조선왕조실록』에는 여성⁷¹⁾, 병사⁷²⁾, 유생⁷³⁾의 휘항 착용 예가 확인되고, 『심청가』⁷⁴⁾에도 심청이가 밥 빌러 나가는 모습의 설명에 "청목휘항(靑木揮項) 둘러쓰고..."의 내용에서 여성의 사용례가 확인된다. 또 『배비장전』⁷⁵⁾에는 주인공이 기생 애랑에게 '돈피 휘양'을 벗어준다는 내용에서 관직자의 사용례를 확인할 수 있어 군인, 노인, 여자, 유생, 관직자 등이 두루 사용한 방한모임을 알 수 있다. 이렇

듯 대중적으로 사용된 휘항은 영조 때 그 착용을 금한 일⁷⁶⁾도 있었고, 존귀한 사람 앞에서 비천한 사람이 휘항을 두르지 못하게 하는⁷⁷⁾ 등 휘항의 사용과 관련된 규정도 보인다.

『성호사설』에 의하면 "휘항의 큰 것은 어깨와 등도 다 덮을 수 있고, 작은 것은 다만 뒤통수와 목만을 두르게 되는데 걸은 비단으로 만들고 안과 선은 모두 털을 뒀으며, 앞으로 늘어진 양쪽 귀는 뒤로 젖혀서 뒤통수에다 마주 매며 이는 이엄과 유사하다"는 기록이 있다. 이외 20세기 이후의 최초 사진인 『조선어사전(1942)』에는 '모양이 남바위와 같고 뒤로 젖혀 매는 것⁷⁸⁾'이라 하였는데, '남바위'는 〈그림 6〉과 같이 휘항과 같으나, 뒤로 젖혀 매는 것이 없는 것⁷⁹⁾이다. 결국 휘항은 이엄과도 유사한 형태이고, 남바위와 비슷하나 좌우 양쪽에 늘어진 부분이 있어 필요에 따라 이를 뒤로 젖혀 매는 형태상의 특징이 있는 것으로, 이러한 형태의 것은 신윤복의 풍속화인 〈그림 7〉에서 확인된다. 또 『일성록』⁸⁰⁾에는 모휘항(毛揮項)과 양휘항(涼揮項)에 대한 기록이 있고, 『오주연문장전산고』에는 모휘항의 앞뒤를 초미(貂尾)로 꾸민 무신(武臣)의 공복용 방한모를 '만선두리(滿繕頭里)'라 기록하고 있어, 크기나 형태뿐만 아니라 재료, 장식에 따라서도 몇 가지 종류로 구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풍차(風遮)·항풍차(項風遮)·삼산건(三山中)
풍차가 방한모의 하나로 문헌에 등장하는 것은

1800년대 이후의 일이다. 『오주연문장전산고』에 의하면 나이 많은 조사(朝士)가 뉘네 출입할 때는 크기가 작은 풍차인 ‘항풍차(項風遮)’, 또는 ‘삼산건(三山市)’을 사용했는데, ‘삼산건(三山市)’은 『오주연문장전산고』에 현종(1844년)대에 이엄의 제도를 고쳐 바깥쪽 가장자리를 당상관은 초미로, 당하관은 흑피로 선을 두른 것으로서 이엄을 대신하여 사용한 관직자의 방한모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풍차는 군복에 사용된 사례가⁸¹⁾ 있고, ‘護項 투구풍차⁸²⁾’라는 기록도 있어 투구에 달린 드림을 지칭 한 호항(護項)과 동의어임을 알 수 있다. 단 풍차는 조선시대 문헌에서는 구체적인 형태를 확인할 수는 없었고, 『조선어사전(1942)』에서도 ‘추울 때 머리에 쓰는 방한구의 한 가지⁸³⁾’라고만 기록되어 있어 남바위나 휘항과는 달리 특별한 형태적 특징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림 8>은 제주도의 상류층 여자의 관물로 제시된 풍차로, 이는 남바위의 형태에 볼거리를 붙인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는 휘항이나 후기의 이엄과도 기록상으로는 유사점이 인정되나 엄밀한 형태적 차이를 문헌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③ 이의(耳衣)

이의는 『성호사설』에 의하면 ‘부인의 것으로 정수리도 덮지 못하고 어깨에도 미치지 못한다’ 하였고, 『광재물보』⁸⁴⁾에는 ‘暖帽 耳衣 휘항’이라 기록되어 있어 방한모의 한 종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한화사전』⁸⁵⁾에는 ‘耳覆ひ. 耳套. 耳纒.’라 하여 특별히 귀를 보호하는 용구였음을 알 수 있으나, 이의의 문헌에서는 더 이상 형태나 쓰임새를 확인할 수 없었다.

④ 액엄(額掩), 말액아엄(抹額兒掩)

액엄은 『정조실록』20(1796)년 11월 기사(己巳)에 의하면 동일 관직의 초계 문신(抄啓文臣) 두 명에게 초피 액엄과 서피 이엄을 각각 하사한 내용⁸⁶⁾에서 그 사용례를 처음 확인할 수 있는데, 당시 액엄은 한자의 의미 그대로 이마 부분만을 보호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액엄은 국말 여성전용의 방한모인 아얌과는 형태면에서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런데 『국한회어(1895)』⁸⁷⁾에는 아얌에 대응되는 한자를 ‘蛾掩.

毛物, 額掩’으로 표기하고 있고, 액엄의 중국식 발음 [아옌]과 뒤섞이면서 발음하기 쉬운 아얌으로 굳어진 것이라는 설⁸⁸⁾ 등으로 보아 ‘額掩(액엄) = 아얌’과의 관계를 설정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오주연문장전산고』에 의하면 현종대⁸⁹⁾에 ‘말액아엄(抹額兒掩)’이라 하여 “경피(鏡皮)를 털이 겹으로 나오게 하고 안은 주(紬)로 하여 둥글기는 수질(首經) 같고 뒤에는 자그마한 끈이 둘 달렸는데 그 끈은 검정 비단(黑緞)으로 하였으며 다시 단추를 달아 갓을 벗지 않고도 겹에서 썼다 벗었다 할 수 있게 하여 착용에 편리하도록 하였고 상하 누구나 다 착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국말 여성용 방한모인 ‘아얌’과 형태가 유사함을 알 수 있어 액엄은 말액아엄으로 이어지고 이는 국말 여성의 아얌으로 연결되면서 명칭의 변화와 함께 쓰임새에도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양전건(涼轉巾)

양전건은 『철종실록』8년 11월 임인(壬寅)의 기록에서 추위를 막는 제구라 하여 방한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형태나 명칭의 유래는 알 수 없다. 단 ‘구제(舊制)인 이엄대신 풍차(風遮)와 양전건(涼轉巾)을 통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문헌의 내용으로 보아 조선후기에 풍차와 더불어 사용하게 된 방한용 쓰개임을 추측할 수 있다.

(3) 고유어

① 볼끼

볼끼는 한자 ‘棚子⁹⁰⁾’와 遮臉皮, 皮馬虎, 圍額, 腦帽의 외래어 방한모 명칭에 대한 우리말 표기로 기록됨으로써 1700년대에 이미 사용된 우리말 명칭임을 알 수 있다.

볼끼는 유물에서 보면 턱과 볼, 귀를 가리던 방한구로 1700년대 신분이 높은 집안에서 사용된 것이 남아 있고⁹¹⁾, 『정미가례시일기(1847)』에 경빈김씨의 가례 때 올려진 복식품목에 ‘즈덕단흑묘피볼끼⁹²⁾’가 기록되어 있는 등,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착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개화기 사진이나 회화에서 보면 일반인들이 남바위에 부착하여 사용하고 있고, 『조선



〈그림 9〉 굴레, 初度弧筵
(국립중앙박물관(2002),
『조선시대 풍속화』,
p. 99)



〈그림 10〉 두명의 한국 아이들, 1925
(국립현대미술관(2006), 『푸른눈에 비친
옛 한국 엘리자베스키스展』, p. 38)



〈그림 11〉 아얌, 1895년 일본의
풍속잡지에 소개된 조선인의
이미지 삽화(권혁희(2005),
『조선에서 온 사진엽서』, p.160)

어사전에는 '모피 또는 형짚에 솜을 두어 두 불을 감싸는 방한구의 하나⁹³⁾'라 하였으며, 석주선⁹⁴⁾은 '턱, 뺨, 귀를 덮기 위한 방한용으로 서민층의 남녀 어린이가 많이 사용했다'는 자료 등으로 보아 일반인들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② 굴레

굴레는 '마소의 목 위에서 고삐에 걸쳐 매는 끈, 또는 마소의 머리를 장식하는 끈'을 지칭하는 우리말 명칭⁹⁵⁾이다. 따라서 방한구로서의 굴레라는 용어도 이에서 유래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형상에서도 양자 간의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김홍도 그림으로 전해지는 〈그림 9〉의 초도호정(初度弧筵)에서 보면 굴레는 적어도 1700년대 후반에는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정유(丁酉) 십월 십오일 의복 하은 발기⁹⁶⁾ 중에서 황자 아기시 삼철일복에 '색단 굴레'가 기록되어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돌 이전부터 4-5살까지의 상류층 어린이⁹⁷⁾의 호사용 쓰개이고, 〈그림 10〉과 같이 방한용 쓰개임을 알 수 있다.

③ 아얌

아얌은 『국한회어(1895)』⁹⁸⁾에 표제어로 처음 등장하며 한자로는 '蛾掩, 毛物, 額掩'으로 기록하고 있다. 또 『조선어사전』에는 '겨울에 부녀가 방한으로 머리에 쓰던 물건. 額掩. 99)'라 하였는데, 액엄->말액아엄->아얌으로의 연결에 관해서는 전술한 바 있다. 이

로써 아얌이라는 것은 19세기 후반에 여성의 방한모를 지칭하는 용어로 정착되면서 아얌드림이라는 장식적인 뒷대기를 부착한 여성의 나들이용 방한구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1〉은 1895년 일본 풍속잡지에 소개된 아얌을 쓴 당시 일반 나들이 여성의 모습인데, 아얌은 궁에서는 착용하지 않았다.¹⁰⁰⁾

Ⅲ. 조선시대 방한모 명칭들 간의 관계 분석

본 장에서는 조선시대 방한모 명칭들을 동의어 명칭, 착용자, 형태와 재료로 방한모 명칭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여 각각의 명칭의 특징을 확인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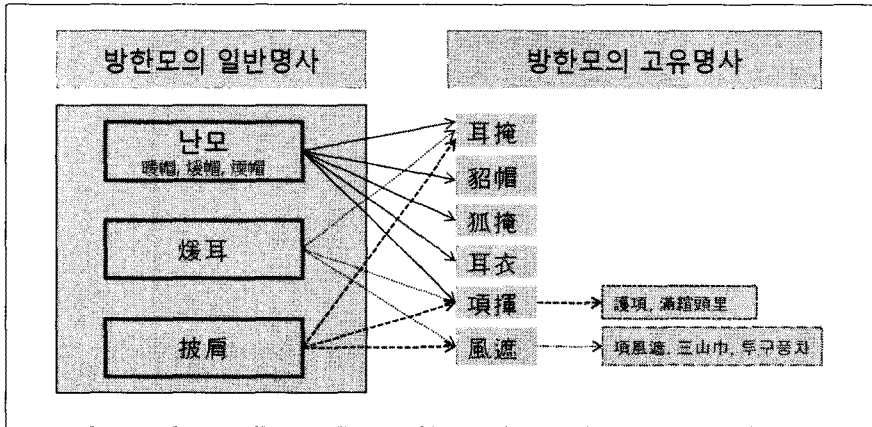
1. 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본 방한모 명칭

조선시대 방한모 명칭 중에는 하나의 상위어 명칭 속에 여러 개의 하위어 명칭이 존재하는 포섭관계 동의어 명칭이 확인되는데, 이는 〈표 5〉와 같다.

난모(暖帽, 煖帽)는 耳掩, 貂帽, 狐掩, 耳衣, 휘항을 포괄하는 방한모 명칭으로, 이들 각각은 곧 시대에 따른 난모의 구체적인 명칭이기도 하다. 따라서 난모라는 명칭 자체는 뚜렷한 형태적 특징을 갖지 않는 방한모에 대한 일반명사로써 耳掩, 貂帽, 狐掩, 耳衣, 휘항을 모두 포괄한다. 난이(煖耳)는 중국과

<표 5> 문헌을 통해 본 동의어 방한모 명칭

방한모 명칭	관련 명칭	출처
난모(暖帽, 煖帽)	狐掩	『肅宗實錄』 16年 3月 戊申 : 狐掩[即暖帽]。
	耳衣, 휘항	『廣才物譜』, 흥문각, p. 176.
	耳掩	『五洲衍文長箋散稿』 下卷, 暖耳衲袷護項煖帽辨證.
	貂帽	『肅宗實錄』 18年 12月 丙子.
난이(煖耳)	耳掩, 披肩	『蒙諭篇』,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p. 17. 『事類博解』, 민창문화사, 冠履門, p.123.
	휘항(揮項) 호이엄(胡耳掩) 풍차(風遮)	『五洲衍文長箋散稿』 下卷, 暖耳衲袷護項煖帽辨證.
피건(披肩)	풍차(차)	『物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하2나. 『物名攷』, 한국고문연구회고문연구(8) 학회자료, p.290.
	耳掩	『明宗實錄』 8年 9月 辛酉. 『芝峯類說』 卷十九, 服用部 巾冠. 『譯語類解』, p.88.
	揮項, 耳掩	李佑成 編(1984), 『星湖全書』 五, 驪江出版社, p. 185 : '長則披肩稍短則揮項最長者只掩耳言披肩則項與耳在中矣'.



<도식 2> 방한모의 관계도

우리나라에서 모두 사용된 명칭으로서, '휘항', '호이엄', '풍차' 등을 포괄하는 방한모에 대한 일반명사임을 확인할 수 있다. 피건(披肩)은 여러 문헌에 '耳掩'의 속칭이라 하였는데, 형태상으로 揮項, 耳掩을 포괄하고 있어 이엄과 휘항과는 완전 동의관계에 있는 방한모 명칭임을 알 수 있다. 휘항은 '면갑'의 일부분인 호항(護項)에서 유래된 명칭이며, '투구풍차'로 언해되는 호항과 모휘항(毛揮項)의 하나로 무신의 공복에 사용한 만선두리는 휘항에서 분화된 명칭으로, 휘항은 이들을 모두 포괄하는 방한모 명칭이

다. 풍차는 나이 많은 조사(朝士)가 대궐을 출입할 때 사용한 작은 풍차를 지칭하는 향풍차, 또는 삼산건 및 '투구풍차'를 포괄하는 방한모 명칭이다. 동의어 명칭의 동의관계를 분석해 보면 <도식 2>와 같이 방한모에 대한 일반명사와 고유명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명사로 분류된 난모, 난의, 피건은 모두 이엄을 공통적으로 포괄하는 명칭들로서 부분 동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착용자 중심으로 본 방한모 명칭

착용자의 성별, 신분을 방한모 명칭을 중심으로 <표 6>에 정리하였다.

남성용으로 제한되어 사용된 방한모 명칭은 모두 19세기 이후에 사용된 한자명칭으로 만선두리, 향풍차, 삼산건, 양전건이며, 이들 모두는 관직자의 방한모였다. 여성용에서 사용된 방한모 명칭은 耳衣, 아얌이며, 남녀공용으로 사용된 방한모 명칭은 난모, 모관, 이엄, 휘항, 풍차, 굴레, 불끼 등이다.

남녀공용의 방한모 명칭의 용례를 신분별로 보면, 임금의 경우 난모·모관·이엄, 남녀 관직자의 경우는 난모·초모·모관·이엄·휘항·풍차가, 군사의 경우는 모관·이엄·휘항·풍차, 또 부녀자의 경우 모관·이엄·휘항이 사용되었고 더불어 풍차를 상류층 여자의 관물로 정리한 것은 1929년 조선총독부의 기록에 의한 것일 뿐, 조선시대 문헌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남녀 어린이의 방한모 명칭에는 불끼·굴레가 사용되었다.

3. 형태·재료를 중심으로 본 방한모 명칭

방한모 명칭을 쓰임새를 중심으로 보면 <표 7>과 같다. 조선 초기에 모관과 이엄은 함께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마나 머리의 윗부분을 덮는 형태와 귀 부

분을 보호하는 형태로 서로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6세기 즈음 이엄은 머리와 목 부분을 감싸는 형태로 변화되었다. 피견은 속칭 이엄이고 형태상으로는 휘항과 이엄을 포괄하는 명칭이며, 휘항은 이엄과 유사한 것으로 이들은 서로 연관됨을 알 수 있는데, (Ⅲ-1-1)항 참조) 『순조순원후가례도감의궤(1802년 10월)』에 涼耳掩의 의차는 ‘冒緞 一尺二寸五分’이고, 『규합총서』에 휘항은 ‘기러 ㄱ음으로 자 세치’라 기록하고 있어 휘항이 이엄보다 다소 컸던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에는 방한모의 명칭이 다양하게 분화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문헌을 통해 이엄, 휘항, 풍차의 연관성을 짐작할 수는 있으나 형태상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조선 말엽의 사진 자료나 유물, 회화를 통해 이들 모두는 정수리 부분이 뚫려 있고 이마와 뒤통수, 목 부분을 덮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림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자는 흑립, 탕건, 감투, 여자는 전모 밑에 착용하는 등 다른 쓰개와 함께 착용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방한모의 재료를 명칭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표 8>과 같다. 방한모의 재료에는 초피와 서피 등의 모피가 단독으로, 혹은 직물과 함께 사용되거나 직물만 사용한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특히 『명종실록』 8년 9월 신유(辛酉)의 기록에는 이엄에 다양한 모피를 신분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고, 조선후반기

<표 6> 성별, 신분으로 본 방한모 명칭

성별	신분	방한모 명칭	
남성용	관인	향풍차·삼산건, 만선두리, 양전건	
	초계 문신	액엄	
여성용	부녀자	이의	
	기생, 부녀자	아얌	
남녀공용	임금	난모, 이엄, 모관	
	관직자	남 : 주청 사은사, 부사, 서장관, 이조 판서, 대사헌, 약방의 관원, 형조판서, 이조참의, 승지, 종친부, 사족, 제학의 관원, 홍문관·승정원·예문관의 관원 여 : 기행나인, 보행나인, 상궁, 시녀, 유모	난모, 초모, 모관, 이엄, 휘항, 풍차
	군사		난모, 이엄
	상하모두		모관, 이엄, 휘항(護項·揮項), 풍차
	부녀자		말액아얌
	어린 남녀		모관, 이엄, 휘항, 풍차(1929년 기록으로 추정) 불끼, 굴레



路上風情

鬪戲

野宴

〈그림 12〉 방한모의 착용 모습
(국립중앙박물관(2002), 『조선시대 풍속화』, p.230)

〈표 7〉 문헌을 통해 본 시대별 방한모의 방한 부분

형태 \ 시대	14C	15C	16C	17C	18C	19C
이마, 머리 상부	모관(추정)	모관 (초피관 초관, 서복피관)	모관	모관	액엄	말액이엄 아얌
귀부분		이엄	이엄			
볼				볼끼	볼끼	볼끼
머리, 목, 등				이엄	이엄	이엄
머리, 귀, 뒤통수					굴레, 이의	굴레, 이의
머리, 귀, 목, 등					휘향	휘향, 풍차

〈표 8〉 조선시대 방한모의 재료 분석

명칭 \ 재료	모피														직물	
	貂皮	鼠皮	倭山 獭皮	倭獺 皮	狐皮	鄉山 獭皮	山羊 皮	狗皮	猫皮	地獺 皮	狸皮	兔皮	黑皮	돈피	胃緞	靑木
난모, 초모	●	●														
초피관, 초관	●															
서복피관		●														
이엄	●	●	●		●	●	●	●	●	●	●	●			●	
피건				●												
휘향		●												●		●
만선두리	●															
풍차, 삼산건	●												●			
액엄	●															

에는 휘향 또한 비교적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VI.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문헌을 중심으로 시기에 따라 다르게 사용된 방한모 명칭들을 통해 우리나라 방한모의 역

사를 이해해 보고자, 조선시대에 발간된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다양한 방한모의 명칭과 의미를 고찰하고, 각 명칭간의 관계를 동의어, 착용자, 형태와 재료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시대 전(全) 시기에 걸쳐 사용된 명칭은 '난모, 이엄, 피건'이었고, 이들은 공통적으로 관직

자의 방한모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일시적으로 사용된 명칭 중에 17세기 초까지의 방한모 명칭에는 '모관, 초피관, 초관, 서복피관' 등이 있다. 이들은 모피의 재료에 차등을 둔 방한모로 크기가 커지기 전의 이엄과 함께 사용함으로써, 신분과 방한의 목적이 드러나고 있다. 17세기 후반부터는 난모, 이엄, 피견과 함께 이 외에 다수의 방한모 명칭이 확인되며 이들은 외래어, 한자어, 고유어 명칭들로 구분된다. 외래어 명칭들은 '이엄', '불끼', '풍차, 휘항'으로 언해됨으로써, 이들이 조선후반기 대표적인 방한모 명칭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자어 명칭에는 호항(護項), 휘항(揮項), 풍차(風遮), 이의(耳衣), 액엄(額掩) 등이 있고, 휘항에서 분화된 만선두리(滿縮頭里), 풍차에서 분화된 삼산건(三山巾), 양전건(涼轉巾) 등 명칭이 다양해진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에 문헌에는 고유어 명칭인 굴레와 불끼, 액엄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이는 아얌이 기록되어 있으며, 점차 한글명칭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방한모 명칭들 간의 관계를 동의어, 착용자, 형태와 재료로 구분하여 고찰한 결과, 조선시대 방한모의 명칭은 구체적인 형태를 가진 고유명사와 구체적인 형태를 알 수 없는 일반명사로 구분되는데, 조선시대 방한모의 일반명사에는 난모, 난이, 피견이 있었고, 이중 난모는 신분이 높은 자들의 방한모를 지칭하기도 하였다. 난모, 난이, 피견의 하위에 해당되는 방한모의 구체적인 명칭인 고유명사에는 이엄, 휘항, 풍차가 있었으며, 이보다 더 하위에는 초모, 호엄, 이의, 호항, 만선두리, 향풍차, 삼산건, 투구풍차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착용자의 측면에서 보면 만선두리, 향풍차, 삼산건, 양전건은 19세기 이후에 사용된 관직자의 방한모였고, 이의, 아얌은 부녀자들이 사용한 방한용 명칭이었다. 이외 난모, 모관, 이엄, 휘항, 풍차, 굴레, 불끼 등 대부분은 남녀공용 방한모 명칭으로서, 조선시대 방한모의 명칭은 비교적 남녀의 구분 없이 사용한 명칭이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형태에서 보면 액엄·말액아엄·아얌은 이마부분을 보호하고, 이엄·휘항·풍차는 머리, 목 부분을 덮는다는 데에서 공통점이 있고, 재료를 중심으로 보면 관직자의 방한모 재료로는 초피, 서피가 가장 널리 사용되

었는데, 고급 관직자의 방한모인 이엄이나 만선두리에는 초피가 사용되었다.

이상 문헌을 중심으로 시기에 따라 다르게 사용된 방한모 명칭들을 분석한 결과, 조선시대 방한모의 명칭은 조선초기에는 방한도구라는 점에 중점을 두어 재료에 의한 명칭이 사용되다가 점차 형태나 쓰임새 등에 중점을 둔 명칭으로 세분화되면서 방한모의 명칭이 다양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난모는 방한모의 일반명사로서 방한모의 고유명사들을 포괄하는 대표적인 명칭이기는 하나, 문헌을 통한 난모라는 용어의 쓰임새를 보면 대체로 관직자의 방한모를 지칭하면서 시대에 따라 구체적인 방한모의 명칭을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이엄이 조선 초부터 19세기 말까지 상하 계층 및 성별에 관계 없이 두루 방한모 명칭으로 사용된 것과 비견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이엄은 방한모의 고유명사로서 조선 전 시대를 통하여 다양한 계층에서 사용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방한모였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내용 중에 난모, 이엄의 명칭과 의미에 대한 재고, 모관의 형태, 휘항의 유래를 추정한 것, 방한모 명칭의 분화과정을 도식화 해 본 것 등은 의미 있는 연구 성과라고 생각된다. 또 종종 대 이후 형태가 커진 이엄은 형태면에서 휘항, 풍차와 서로 유사점이 보이는데, 쓰임새를 보면 후반기에는 이엄은 대체로 관직자가, 휘항이나 풍차는 군사들이 사용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문헌상으로는 그 이상의 자료를 찾을 수 없어 서로 간의 명확한 차이를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밝힌다.

참고문헌

- 1) 권순영 (1977). 조선조 여인의 난모에 관한 연구-1800년~1930년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고금선 (1989). 조선조 난모에 나타난 조형성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김성희 (2007). 조선시대 방한모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太宗實錄 8年 10月 更子.
- 5) 肅宗實錄 43年 9月 辛未.
- 6) 英祖實錄 13年 1月 己亥.

- 7) 正祖實錄 卽位年 9月 壬申.
- 8) 正祖實錄 3年 1月 戊戌.
- 9) 光海君日記 7年 10月 甲辰.
- 10) 孝宗實錄 5年 9月 丙午.
- 11) 孝宗實錄 9年 10月 己卯.
- 12) 肅宗實錄 卽位年 11月 戊子.
- 13) 肅宗實錄 17年 1月 癸丑.
- 14) 肅宗實錄 18年 12月 丙子.
- 15) 成宗實錄 8年 11月 癸巳.
- 16) 成宗實錄 6年 7月 甲子.
- 17) 成宗實錄 10年 12月 壬子.
- 18) 成宗實錄 18年 12月 丙子.
- 19) 明宗實錄 卽位年 9月 癸未.
- 20) 明宗實錄 8年 9月 辛酉.
- 21) 成宗實錄 3年 1月 己未.
- 22) 光海君日記 2年 5月 辛亥.
- 23) 유승옥 (1991). 조선왕조 궁중의례복식, 수학사, pp. 373-374.
- 24) 世宗實錄 14年 11月 乙丑. “大小朝會及常參朝啓風寒之日老疾之臣觸寒行禮未便. 自今大小臣僚依中朝例常著耳掩副提學以上用貂皮段子; 司諫以下至九品用鼠皮青綃.”.
- 25) 經國大典 卷3 禮典 儀章 冠.
- 26) 大典會通 卷之3 禮典 儀章 冠.
- 27) 김성희 (2007). 앞의 글, pp. 11-14.
- 28) 太宗實錄 17年 5月 癸卯/ 文宗實錄 卽位年 10月 己亥 / 世祖實錄 1年 7月 壬午/ 燕山君日記 1年 1月 庚寅.
- 29) 太宗實錄 17年 8月 乙酉.
- 30) 世宗實錄 5年 9月 申巳/ 世祖實錄 1년8월 庚戌.
- 31) 端宗實錄 卽位年 10月 癸巳.
- 32) 世祖實錄 1年 7月 庚子.
- 33) 明宗實錄 21年 10月 壬戌.
- 34) 孝宗實錄 4年 12月 壬午.
- 35) 宣祖實錄 16年 9月 申巳/ 光海君日記 1年 11月 壬辰/ 孝宗實錄 4年 12月 壬午/ 英祖實錄 44年 4月 甲戌.
- 36) 憲宗實錄 10年(1844) 12月 壬寅. “命朝服中耳掩以三山中代之堂上以貂皮堂下以黑皮開縮.”.
- 37) 哲宗實錄 8年(1857) 11月 壬寅. “元容曰: 此是禦寒之具也. 所著本有耳掩而年前又因教着風遮. 今又有此巾并通用好矣. 上曰: 耳掩, 舊制也. 與今涼巾通用可也.”.
- 38) 哲宗實錄 11年(1860) 2月 壬寅.
- 39) 譯語類解. 홍문각, p. 88.
- 40) 方言類釋. 홍문각, 服飾類 二22b~二23a.
- 41) 周錫保 (1983). 中國古代服飾史, p. 442. “披肩 用貂鼠製成 高六七寸的一圓圈. 大如帽 在兩旁再製貂皮二旁毛在裏而垂至耳 用鈎帶斜掛於官帽的後山子上所以將整個官帽除二翅外都罩有貂鼠毛者. 與暖耳制不同”.
- 42) 高麗史節要. 卷五. 文宗仁孝大王 十七年(1063) 癸卯. “命出征袍庫綿衣袴毛冠皮靴賜邊卒貧乏者”.
- 43) 高麗史. 병제사. 文宗 18年 8月. “以縣袍縣袴毛冠各一千賜西北戍邊軍士貧乏者”.
- 44) 太宗實錄 11年 9月 己未.
- 45) 太宗實錄 7年 11月 丁卯.
- 46) 世宗實錄 14年 11月 己巳.
- 47) 文宗實錄 卽位年 9月 壬寅.
- 48) 世宗實錄 12年 8月 癸未.
- 49) 中宗實錄 17年 5月 丙午.
- 50) 光海君日記 14年 4月 庚午.
- 51) 仁祖實錄 26年(1648) 10月 甲午. “近聞, 士大夫又好着白毛冠、白毛帽子.”.
- 52) 주 31) 참조.
- 53) 世宗實錄 5年 9月 辛巳.
- 54) 世宗實錄 1年 9月 戊午.
- 55) 世宗實錄 7年 2月 壬子.
- 56) 世宗實錄 5年 9月 辛巳.
- 57) 宣祖修正實錄 7年 11月 辛未.
- 58) 최창렬 (2001). 오솔길을 따라서, 역락, p. 175.
- 59) 譯語類解補. 아세아문화사, p. 309 / 同文類解. 홍문각, p.115.
- 60) 蒙語類解補. 서울대학교출판부, p.243.
- 61) 方言類釋. 홍문각, p. 131.
- 62) 『역어유해보편』과 『방언유석』
- 63) 同文類解. 홍문각, p.117.
- 64) 方言類釋. 홍문각, p. 131.
- 65) 김철준 (2004). 『화어류초』의 어휘연구, 역락, p. 323.
- 66) 周錫保 (1983). 앞의 책, p. 405. “暖耳: 用黑色素紵作一圓籠, 高二寸許, 兩旁用長方貂皮像披肩式垂之. 百官於十一月始戴”.
- 67) 김명환·김영경·이만기·허창현 엮음 (2003). 한국 대표 고전소설(4권), p. 72.
- 68) 太祖實錄 1권 總序 41번째기사/ 太祖實錄 1권 總序 66번째기사/ 太宗實錄 13年 6月 乙亥.
- 69) 太宗實錄 10年 5月 乙未.
- 70) 物名攷. 국립중앙도서관소장본, p. 43.
- 71) 英祖實錄 50年 11月 辛酉. “...其母吳氏着揮項人關門, 擊串開誠, 上賢之, 有是命.”.
- 72) 正祖實錄 16年 1月 壬辰.
- 73) 正祖實錄 16年 12月 辛未.
- 74) 김명환·김영경·이만기·허창현 엮음 (2003). 앞의 책. 빛샘, 심청전, p. 86.
- 75) 김명환·김영경·이만기·허창현 엮음 (2003). 앞의 책. 배비장전, p. 309.
- 76) 正祖實錄 17年(1793) 10月 庚辰. “觀於先朝揮項之禁, 年前帖裏之事, 可以推知.”.
- 77) 五洲衍文長箋散稿. 동국문화사, 下卷, <표 1> 참조.
- 78) 文世榮 (1942). 朝鮮語辭典. 京城: 朝鮮語辭典 刊行會, p. 1840.
- 79) 文世榮 (1942). 앞의 책, p. 296.
- 80) 日省錄 28. 서울대학교출판부, p. 772. 정조 24년 1월 7일(庚申).
- 81) 哲宗實錄 11年 2月 壬寅.
- 82) 物名攷. 국립중앙도서관소장본, p. 43.
- 83) 文世榮 (1942). 앞의 책, p. 1704.
- 84) 廣才物譜. 홍문각, p. 176.
- 85) 諸橋徹次 (1984). 大漢和辭典 卷 8권. 東京: 大修館書店, p. 183.
- 86) 正祖實錄 20年 11月 己巳. “...抄啓文臣申詢, 貂皮額掩

一部賜給。發揮已發、未發之性、奇哉奇哉! 始信嶠南學子之實地着力。抄啓文臣柳台佐鼠皮耳掩一部賜給”。

- 87) 國漢會語. 태학사, p. 565. “아얌 蛾掩, 毛物, 額掩”.
- 88) 최장렬 (2001). 앞의 책, p. 171.
- 89) 문헌에 ‘今上即位後耳掩還復舊制自十餘年前有抹額兒掩之制’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때의 今上의 즉위는 문맥으로 보아 哲宗으로, 10여전 전이면 전 왕조인 憲宗으로 추정된다.
- 90) 蒙諭篇.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p.19.
- 91) 溫陽民俗博物館 (1988). 朝鮮時代의 冠帽. 온양민속박물관, p. 98.
- 9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古文書集成 十三.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 638.
- 93) 文世榮 (1942). 앞의 책, p. 708.
- 94) 석주선 (1993). 冠帽와 首飾. 고려서적주식회사, p. 214.
- 95) 文世榮 (1942). 앞의 책, p. 219.
- 9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古文書集成 十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 66.
- 97) 溫陽民俗博物館 (1988). 앞의 책, p. 99.
- 98) 國漢會語. 태학사, p. 565.
- 99) 文世榮 (1942). 앞의 책, p. 1024.
- 100) 권순영 (1977). 앞의 책, p. 23.